

회장 인사 대동보 편찬으로 순천김문(順天金門)의 중흥(中興)을 이룩하자!



친애하는 종친 여러분!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와 이 땅에는 생명의 기운이 완연한 또 한번의 봄을 맞았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순리는 인간의 뜻과는 무관하게 역사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순천김(順天金)가문의 역사도 어언 천년을 이어오는 뿌리깊은 나무로 자라왔습니다.
장구한 파란의 세월동안 오직 깨끗한 충절 하나로 역사의 매듭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빛나는 가문을 남겼습니다.
왜구(倭寇)를 격퇴하여 민락(民樂)케하신 시조 김충장군을 비롯해 太定太世 사조에 충절하신 김승주 정승, 육진을 개척하고 어린 단종을 보위하다 순절하신 절제 김중서장군, 인조 반정의 일등공신 영의정 복저 김유 정승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의 역사가 순천김문을 충절의 가문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손색없는 가문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순천김종친 모두의 자랑이며 이 시대에 본받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 남겨야 할 빛나는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친애하는 종친 여러분!
순천김씨 중앙종친회에서는 벌써 1년여 족보편찬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가운데 고령의 종친 여러분이 나와 밤낮없이 편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우리 순천김문의 역사이며 뿌리를 찾는 것이요, 아울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인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가 갖는 중요한 의미만큼이나 가문의 역사 또한 중요합니다. 한민족의 역사가 한 나라의 정통성을 확인시키듯 족보 또한 우리 개개인이 속한 가문의 정통성을 말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실로 민족의 이합집산이 심했던 후삼국시대의 몰락에서부터 왕위 찬탈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난세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의 민족 대이동, 6·25동란으로 인한 분단의 역사를 통해 민족도, 가문도 나뉘어진 채 역사의 정통성을 손상당했으며 수많은 가문이 뿔뿔이 흩어져 더러는 가문의 역사를 잊은 채 살아 왔고 또 더러는 성씨(姓氏)를 바꾸어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훼손에 대한 복원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고 가문의 역사 또한 바로 잡아야 할 대명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족보는 바로 이러한 우리 가문의 역사를 바로 잡자는 것이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뿌리를 후손에게 이어 확인시키자는 작업인 것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우리 순천김문은 다섯 차례의 공식적인 족보 편찬 역사를 갖고 있

습니다. 지난 1764년의 갑신보 편찬은 모든 점에서 미비했고, 1984년의 갑자보 편찬은 북녘 땅에 산재한 철원공파와, 절제공파를 누락시키고 계대 확인에 대한 충분한 의견만을 남긴 채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동보 편찬은 바로 지금까지 미비했던 시조와 계대 등을 보완하면서 이 땅의 순천 김문 모두가 축망하는 명실상부한 대동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종친 여러분!
아직도 우리 민족은 작금의 파당정치가 말해주듯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도 분분한 이론과 주장으로 나라와 민족이 하나됨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가문 또한 예외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조상들은 난세일수록 빛나는 영웅으로 나타나 역사와 민족 앞에 우뚝 서왔습니다. 그것은 실로 대의(大義)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이며 의(義)를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신하의 도(道)를 꺾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상들만의 위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친 모두는 대동보 편찬이라는 막중한 위업을 위해 나를 희생한 조상의 숭고한 정신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산고가 한 생명을 창조하듯 대동보 편찬도 순탄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친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최초의 완전한 대동보 편찬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이뤄야 합니다. 이는 조상들에 대한 후손의 도리이며, 세세토록 이어갈 또 다른 후손들에게는 마땅한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 빛나는 역사의 가문을 확인하는 것이며 순천김문이 대동 단결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는 그들 인생의 뿌리가 되는 중차대한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 순천김문의 중흥을 꾀하는 분기점이 될 뿐 아니라 민족을 이끌어갈 자랑스런 역사의 가문으로 세세토록 변함없이 전승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종친 여러분!
이제 대동보 편찬에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앞서서 일하는 중앙종친회와 편찬을 맡은 종친들에게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도 전국 각처에서 수고하고 있는 수단작업을 맡은 종친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올해는 우리 순천김문에도 중요한 의미로 기록될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대동보 편찬을 위해 거듭나는 역사를 만들시다. 부디 종친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01년 4월 중순 中央宗親會長 金鍾植

평양군(平陽君) 시조(始祖) 영당제(影堂祭) 봉행

3월 30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同源齋에서

시조(始祖) 평양군(平陽君) 영당제(影堂祭)가 지난달 30일(음 3월6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방축리 동원재(同源齋)에서 종식 중앙종친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처에서 모인 종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奉行)됐다.
이날 영당제는 세연(世淵) 종친이 집례를 맡고 초헌관에 동택 종친(금산) 아현관에 영도 종친(원주) 중헌관에 정태 종친(금산)이 각각 맡아 제례(祭禮)를 집전(執典)했으며 참석한 종친들 모두 조상의 유덕(有德)을 기리며 예(禮)를 갖추었다.

수연(秀淵) 종친, 공로패 받아

한편 이날 중앙종친회 종식 회장은 절재공(節齋公) 일대기인 출판계 최초의 인물 평전 '거칠 것이 없으라'를 출판하도록 심혈을 기울인 수연(秀淵) 종친에게 절재공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치하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사 뒷면 계속)



평양군(平陽君) 시조(始祖) 영당제(影堂祭)를 봉행한 종친들 기념촬영



(앞면 계속)
 절재공 일대기 '거칠 것이 없어라'는 수연(秀淵) 종친이 기획해 국내 정상급 출판사인 김영사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거칠 것이 없어라'는 책 제목도 수연(秀淵) 종친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만든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책이 아닌 국내 정상급 출판사의 작품으로 출판토록 해 절재공의 역사적 위상을 확인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수연종친은 순천김씨 집성촌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 출신으로 한양대학을 나와 동아일보(DBS), KBS(한국방송공사)에서 22년간 언론인으로 재직하다 사회사업과 목회활동을 위해 지난 94년말 사임했다. 현재 수연종친은 한길교회(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담임목사로 시무하면서 지난 87년 부터 사재를 털어 운영해온 산간벽지·오지·섬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개설해 주는 독서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좋은책읽기 가족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등 사회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다.

절재공 일대기 「거칠 것이 없어라」를 출판해 중앙종친회 종식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는 수연종친
 • 3월 30일 동원재 •

제 3차 대동보(大同譜)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議) 협의회 개최

5단(5段) 횡서(橫書) · 4×6 배판(倍版) 양장으로, 내년 상반기중 제작 완료 계획

대동보 편찬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시조 묘역 동원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동보 편찬 전반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이날 대동보는 전질 모두 5단 횡서(橫書)로 수록하며, 제책(製冊)은 4×6 배판(倍版) 양장(洋裝)으로 하기로 했다.

대동보 1권(首卷)은 다음과 같은 순(順)으로 수록하기로 했다.

수권(首卷)의 수록순

- 1) 서문 및 간행사
- 2) 목차
- 3) 현조(顯祖) 유적 사진-정리된 상태를 천연색 사진으로
- 4) 산도(山圖)-시조, 양경공, 절재공 묘소도
- 5) 세덕록-계대순으로 배열. 동일조에 관한 글은 동일 난에
- 6) 구보의 서문 및 발문(跋文), 범례(凡例)
- 7) 본보의 범례
- 8) 세계표(35세 까지)
- 9) 손록(孫錄)- 1세 - 25세(범계파(汎系派))
 - 26세 부터는 종파(宗派) 단위로 (목계공파, 절재공파, 전서공파, 판서공파, 익찬공파, 남포공파, 어사공파, 판서공파, 감찰공파, 군수공파, 횡성공파, 상의원공파)
 - 현조의 주요 행적은 우리말로 함
- 10) 참고록(각권 말미에)

- 종친과 문사 • 족보의 기원 • 보첩의 종류 • 보첩의 술어
- 친족 • 계촌법 • 향사(享祀) • 이조시대의 제도
- 고려시대관직표 • 동·서양 연대 대조표

또 대동보 2권부터는 목차, 35세(世)까지의 세계표(世系表), 손록(孫錄), 참고록(參考錄)순으로 수록하기로 협의했다.

대동보 편찬위원회 명재 실장은 이날 질의 응답 형식을 통해 이번 대동보에는 상계대(上系代)를 반드시 수록하고, 이달안(4月)에 초고(草稿)인쇄를 시작해 교정과정을

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재 실장은 아울러, 내용을 알기 쉽도록 인명(人名), 지명(地名), 관직(官職) 등 고유명사는 한자(漢字)로 표기하고 조상의 행적은 한글로 옮겨적는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종식(鍾植) 중앙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동보 편찬을 계기로 종친 모두는 양경공파니, 지평공파니 하는 중시조 중심의 족보 개념을 버리고 시조 평양군을 중심으로 대동 단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역사적인 대동보 편찬이 우리 순천 김문의 중흥을 꾀하는 계기가 되도록 공지를 갖고 모두가 하나가 되자고 역설했다.

이날 협의회가 열린 동원재 강당에는 편찬위원들 외에도 영당제 참석을 위해 각처에서 온 50여 종친들이 함께해 대동보 편찬에 대해 소상히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대동보 편찬 위원회의 협의회 • 3월 30일 동원재 •

월담사(月潭祠) 상원향사(上元享祀) 봉행(奉行)

- 2월 7일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월담사(月潭祠)에서 -

월담사(月潭祠) 상원향사(上元享祀)가 지난 2월 7일 경북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월담사(月潭祠)에서 80여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상원향사는 양경공 대종손 한철 종친이 초헌관을 맡아 엄숙하게 집전(執典)했으며, 참석한 80여 종친들도 양경공의 유덕과 유지(遺志)를 기렸다.

이날 월담사에서는 제1회 월담사 수호관리 사업회 총회가 열려 월담사 중건(重建)을

위해 전 종친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결의했다.

이날 수호관리 위원회 측은 공사비 모금에 나서 일본에 거주하는 인배 종친(양경공 19대)으로부터 천만원의 접수를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향사에는 중앙종친회에서 명재 종친과 학원 종친(간사장)이 참석했다.

망미당공(望美堂公) 신도비(神道碑) 건립 제막

해남 향교(海南 鄉校)가 주관, 공(公)의 유덕(遺德)과 숭고한 정신 기려



조선조 문종(文宗)때 진사(進士)에 급제한 해남 지역 향시조(鄉始祖) 망미당공(望美堂公)의 신도비 제막식(神道碑 除幕式)이 지난해 10월 22일 순천김씨 집성촌(集姓村)인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망미당 공원에서 거행됐다.

망미당공 신도비 제막은 해남 향교(鄉校) 유림(儒林)들이 공의 유덕(遺德)과 숭고한 유지(遺志)를 기려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로 평가, 추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망미당공은 양경공(襄景公)의 4대손(4代孫)으로 조선조 문종(文宗)때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단종때인 1453년 계유(癸酉)피화(被禍)로 형(兄) 남은공(南隱公)과 함께 전남 해남땅에 내려와 형 남은공은 방춘리에 정착하고 망미당공은 산이면 구성리에 뿌리를 내려 자손을 퍼뜨려 540여년 간 집성촌을 이뤄오고 있다.

순천김씨 집성촌 구성리(九星里)는 6·25동란 전까지만도 80여 세대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50여 세대의 종친이 집성촌을 이뤄 살고 있고, 현재 산이면 일대에는 모두 130여 세대의 종친들이 살고 있다.

집성촌 구성리는 서울 지역 중진회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채용 종친(변호사) 두원 종친(광주, 의학박사·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상헌 종친(육군장성)등 그동안 많은 정·관·학계 인사들을 배출했다.

← 망미당공(望美堂公) 신도비(神道碑) 제막
• 2000년 10월 22일 해남군 구성리 망미당 공원 •

동원재유사(同原齋有司)에 환수(煥洙)종친 임명

중앙종친회는 그동안 동원재 유사(有司)를 맡았던 춘희 종친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환수(煥洙) 종친을 지난 2월 5일 신임(新任) 유사(有司)로 임명했다.

부자(父子) 사법시험(司法試驗) 합격 종친(宗親) 탄생

광주 상옥 종친(13회 합격)에 이어 아들 원지 종친 42회 합격

전남 해남 출신 상옥 종친(변호사·사시 13회 합격)의 아들 원지 종친이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자가 사법시험에

대(代)를 이어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전남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순천 김씨 집성촌에서 남은공(南隱公)의 후예로 태어난 상옥 종친의 아들 원지 종친은 1976년생으로 광주 석산 고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 고려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며 이번 42회 사법고시에 합격, 지난 달 2일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절재공(節齋公)의 가훈(家訓)을 順天김문의 가훈으로 삼자!

절재공(節齋公) 가훈(家訓) 제작보급

친필로는 국내 유일... 덕목(德目)과 도리(道理)의 가치 일깨워
절재공 위상 정립 사업 일환, 실비 3만원에 보급



중앙종친회는 '절재공의 가훈을 순천김문의 가훈으로 정착자'는 취지아래 이 가훈을 인쇄본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절재공이 남긴 이 가훈은 친필로는 현재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몽유도원도 시첩외에 국내에 있는 유일한 역사적 가치가 소중한 유품으로 서울대 도서관에 그 진본이 소장돼 있다.

절재공이 만년(晩年)에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고인의 인품(人品)과 정신은 물론, 후대를 생각하신 자애로운 심성이 묻어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만대에 걸쳐 명심하고 지켜야 할 덕목(德目)과 도리(道理)로 평가되어 학계로부터 그 가치와 소중함을 인정받고 있다.

중앙종친회는 절재공 위상정립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이번 가훈제정을 전국 모든 종친으로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가훈제작에 들어가 개당 실제작비(3만원)만 받고 보급하고 있다.

原稿 募集 要望

順天 金氏 宗報에 게재할 원고를 募集 하오니 宗親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祖上님에 대한 行蹟과 恩惠 및 考證資料에 관한 건
2. 宗派 및 宗會의 現況·活動에 관한 內容
3. 宗員의 教養을 위한 內容
4. 모든 宗員의 專門分野別 參考할 만한 글
5. 孝行, 善行 등 우리 문중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추천
6. 전국각처에 산재해 있는 집성촌 소개
7. 그밖의 詩·紀行文·隨筆

위와 같은 내용의 原稿를 보내주시면 宗報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종친 동정(宗親 動靜)

■ 광재(光在)종친, 모친상(母親喪) 3월 19일 타계
전화 02)336-6481, 031)234-3161

■ 광흥종친 부친 상익공(商翼公) 묘소 이장

광흥종친(양경공 18대)은 부친 상익공의 묘소를 경기도 이천에서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산41번지로 이장했다. 이날 묘소 이장식에는 130여 종친과 지인(知人)등이 참석했다.



새로 단장된 상익공(商翼公)묘소 • 경기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산41번지 •

■ 준일(俊壹)종친 아들 태엽(泰燁)군 결혼
2월 25일 서울 서초구 외교클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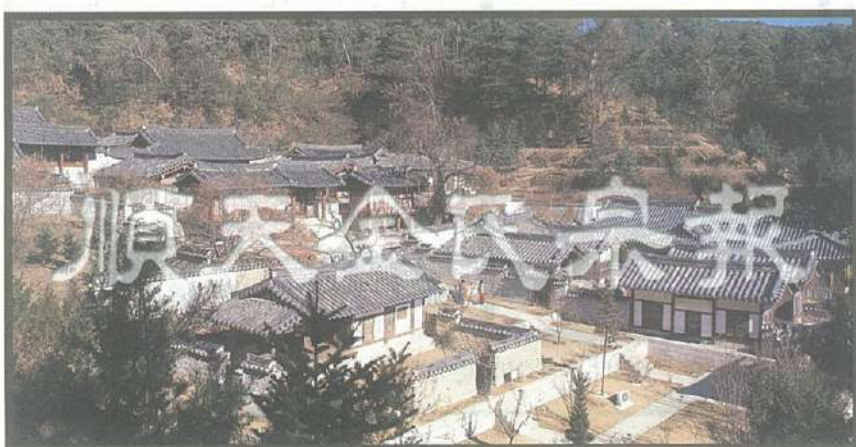
年會費 적극 수납안내

중앙종친회는 임원 종친(宗親) 및 각세대 종친(宗親)들이 납부하는 연회비와 독지종친(篤志宗親)들의 찬조금 등 종친(宗親)여러분의 협조로 운영됩니다.

제 12기(2000.10.1~2001.9.30) 연회비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종친회는 대동보 편찬이라는 막중한 중사(宗事)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중사(宗事)운영을 위해 종친(宗親)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회비납부)를 당부 드리오며, 하시는 사업의 발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회비납부액	회장	년	200만원이상
	부회장	년	50만원이상
	운영위원	년	20만원이상
	고문 명예회장	년	10만원이상
	감사 간사 이사	년	10만원
	대의원	년	5만원
	세대당년회비	년	2만원

이금이금좌	농협	069-01-212885
	한빛은행	146-003175-02-501
	우체국	012351-02-073450
	지로번호	7637405



알려드립니다

현재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종친(宗親)들의 현주소(現住所)가 많이 누락(漏落)되고 변경(變更)되어 종보(宗報)의 발송등 일반 중사(宗事) 운영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종친회에서는 새로운 2001년을 맞이하여 전국 종친(宗親)들의 주소록(住所錄)을 재정비(再整備)코져 하오니, 이미 연락을 드린바와 같이 각 지역 종친회(各地域 宗親會), 파종회(派宗會)의 임원(任員)에서 누락(漏

落)되었던 종친과 특히 성년(成年)이 되어 분가(分家)하고 새로이 일가(一家)를 창립(創立) 하고, 다함께 힘을 합쳐 중사(宗事)를 도모(圖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은 탓으로 이름은 한자(漢字)로 표기(表記)하여 주시되 주소(住所)와 전화번호를 함께 통보하여 주시고, 전화(02-400-2501~2)나 팩스(02-400-2505)로 연락을 주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大同譜 收單에 관한 말씀

금번 修譜에 있어서는 宗派單位 작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收單작업 또한 各派에서 천거된 분이 위촉받아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경(4月) 草稿가 印刷에 들어갈 예정이오니 아직 접수되지 않은 宗親께서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收單위원과 연락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여의치 않을 시는 중앙종친회로 연락바랍니다.

• 수단위원 명단(무순) •

파별	수단위원	전화번호	파별	수단위원	전화번호
목재공 · 절재공파	김영태	053-953-8281	역찬	김하연	054-853-8334
	김용석	053-581-5684		김상목	061-532-2875
	김영환	063-862-4276		김한수	031-205-0605
	김동원	02-859-6351		김병화	02-701-3251
	김종원	02-931-4720		김재석	031-0612-8921
	김달원	041-833-9450		김남석	02-432-4028
	김수용	053-357-1824		김재숙	02-433-1581
	김석원	016-381-3315		김재희	061-536-9646
	김정순	062-512-4360		김정희	011-9639-3757
	김왕영	041-753-1073		김채덕	061-532-5875
전서공파	김병운	031-632-3451	어사공파	김상률	02-487-2817
	김문식	031-632-3450		김진효	061-533-3282
	김일량	031-632-3432		김백원	061-532-4941
	김남수	031-773-0761		김유동	061-884-3828
판사공파	김동성	02-916-1158	판서공파	김학순	061-744-1191
	김응순	053-941-6865		김성태	061-763-2515
	김동근	054-841-2316		김호채	
	김문원	054-552-7275		김택호	061-761-6844
	김창호	032-873-8577		김근모	061-651-9368
	김경로			김종두	061-681-0376
	김달웅	054-532-5143		김삼용	061-741-1479
	김병준	054-552-3547		김종배	061-742-7835
	김규팔	054-553-2368		감찰공파 사무소	063-625-3662 016-651-7667
	김호남	054-534-8811		군수공파(철언공파)	02-400-2501
의찬공파	김용희	032-322-6216	형성공파 사무소	016-375-3002 011-9355-2627	
	김정걸	054-822-3078	상의원공파	김광홍	018-272-1570 02-305-1570
	김석산	054-855-1495		김어연	031-962-8968
	김인엽	054-535-2321		김동학	031-963-8852
	김윤환	054-853-2974		김규연	043-260-0909
	김석윤	054-855-2943		김상우	031-332-4708
	김보연	017-556-5382 051-624-5382		김문연	031-676-4072
	김봉희	054-421-0969		김상민	031-675-9295
김동현	054-552-5617				

우리 할아버지 생각

김유경(철원공파)

우리 집은 제북 철원공 휘 玉字公, 琮子公 두분 형제의 자손이다. 더 넓게는 평양 부원군 襄景公 할아버지 파이고 시조 聰 할아버님으로 부터는 40여 세대가 지났다. 새로 대동보를 만드니 지난번 빠졌거나 새 세대들은 등재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가락동 종친회에서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족보 일을 하고 계셨고 컴퓨터 앞의 젊은 분들도 계셨다. 인사를 받으시고 무슨 공, 파 갈래를 따져서 여러 이름자들을 짚어보시더니 '아무개의 고모별, 아무개의 손주별 되시는 구나. 어려운 한 자이를 조상을 보니 글 많이 한 어른이 계셨나 보다' 하시며 말을 건네셨다. 이런 대화는 일가 친척이 얽힌 종친들 간에만 오가는 내용일 것이다. 이후 족보와 가계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집은 부친이 소년때 평안도에서 서울로 오셨다. 징검다리 같은 조상님 몇 분과 직계 증조부 이래의 사실담을 조금 들어 안다. 삼국유사의 저자 김일연이 순천 김씨라는 글을 읽었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으나 족보상의 위치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족보에는 인조반정에 참여하셨던 조상님 기록도 있어 흥미롭고 생생하다.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이야기는 절제대감 종서 할아버님에 대한 것인데 1453년 계유정난(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세력인 김종서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의 역사 때문일 것이다.

절제대감의 글을 몽유도원도에서 처음 봤었다. 1447년 안평대군의 꿈을 화가 안견이 그리고 그림 속 이상향을 두고 20여 사대부들이 쓴 글을 한데 꾸며 '천년은 가리라 자부한다' 했던 몽유도원도가 1986년 5백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공개 전시됐었다.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로 일할 때라 당연히 서울국립박물관으로 그 진본 그림을 보러 갔었다.

안평대군과 안견, 김종서와 박팽년등 공경대부들 사이에 예술과 사상을 두고 오간 글들이 있었다. 신숙주만을 제하고 글을 부친 사람들이 한꺼번에 비극적 죽음을 당하는 역사전개를 자세히 알고 싶어 나는 관련 자료를 다 구해 보았었다. 절제 할아버님 글의 선명한 목적을 보면서 피가 한 방울 정도는 섞였을 그 할아버님이 어떤 분이였을까에 생각이 미쳤다.

몽유도원도는 15세기 그림으로 유일하게 남은 귀한 유물이다. 이 그림에 20여인의 글이 부쳐져 있기에 그 가치는 더욱 높다. 후일 몽유도원도를 소장하고 있는 일본 天理대학 관계자를 만났을 때 1996년 두 번째로 서울에 왔던 몽유도원도는 진본 아닌 사본이었음도 확인했다. 최근세에 일본으로 흘러나간 이 역사적인 그림을

순천 김씨 가문에서 소장할 수 있다면...

서대문 농협박물관을 지나칠 때면 이곳이 절제 할아버님께서 수양대군을 맞닥뜨렸던 집터였음이 떠오르곤 했다. 수양이 쓰고있던 사모의 뿔이 부러졌다는 것이 서두었다. 생각은 할아버님을 옆에서 모시고 있던 아드님들로 이어지곤 했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 말고 누가 남아 어떻게 대를 이어갔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문경으로 피신해 갔다는 얘기들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다.

철원 부사이자 병마절제사였던 玉 할아버님의 아우 琮 할아버님은 평안북도 광산으로 떠나셨다. 우리 집안은 그때 이후 5백여년을 평안북도에서 살게 된 것이었다. 족보에는 琮 할아버님 묘소가 남산 봉수대 아래 있고 석상과 재실이 있는데 동쪽으로 수장 떨어져 조그만 석굴이 있다는 등의 기록이 있다. 마치 보물섬의 지도 표기 같다.

어떤 성씨의 여인들이 순천 김문에 시집오셨는지도 간략히 나와있다. 정경부인 숙부인 정부인의 품계가 간혹 보인다. 고생을 많이 하셨을 조상님들도 뵈는다. 얼굴도 알 수 없는 조상이시지만 지금까지 어떤 고리를 이어 와있는지가 실감나는 것이다. 6.25를 전후해 이북을 떠난 철원공 후손들에게 대동보 편찬을 알리는 고전적인 종친어른의 편지를 받고 2백여 가구가 월남 하셨음도 처음 알았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평안북도 정주를 보여주었다. 그때 어느 장면보다 초록산과 쪽빛 하늘이 어우러진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서 났으니 특별히 그리울 것도 없지만 그 산천이 그렇게 강렬히 보일 줄은 몰랐다. 이즈음 모습 등은 덤덤할 뿐이었다.

■ 김유경 (철원공 후손)

· 1947년 서울 출생

· 서울대 사대 불어과

· 이화여대 대학원(불문과)졸업

· 경향신문기자 · 문화부장 ('69 - '97)

· 저서 : '웃과 그들' (삼산각 출판)

· 편역 : Jon Covell 박사 저서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 정리 : 최태영 박사 역사 연구서 "인간 단군을 찾아서"

· 주소 : 서울 종로구 구기동 266번지 청구빌라 106-103 Tel: 02)379-9115



조상님들의 은거지였던 백운산(白雲山)

김동주(양경공 19대)



백운산(白雲山) 전경

순천 김씨의 각파에서 나온 가승(家乘)의 진위를 밝히는 데는 김평(金平)과 백운산(白雲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푸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김평의 사실과 백운산의 위치를 밝히느냐 하는 운명이 걸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평 문제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과 비교해서 쉽사리 해결할 수 있었지만, 백운산 문

제는 지평공파의 <가승>에 '김보당(金甫堂)의 난 때 처부(妻父)의 연고에 연좌되어 내쫓겨 백운산에 은거하였다.' 하고 <고려사>에 '김보당의 난 때 처부 한언국(韓彦國)이 피살되자, 김평은 처자를 데리고 가서 승평군(昇平郡)에 은거하였다.' 하고, <고려사절요>에 '김보당의 난 때 그 장인 한언국이 피살되자, 김평은 처자를 데리고 가서 승평군에 은거하였다.' 하므로, 이 기록들로 미루어 백운산이 승평군에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지승람> 등에서 승평군에 백운산이 있는 것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몹시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발하여 계속 조사해 나갔더니, 호남대생으로 조선조 영조 때 대학자였던 황윤석(黃胤錫)의 <이재난고>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羅州廉永瑞之子宗得己卯生者 以其宗人廉上舍宗慎書至 言其父所借輪鐘 當還推之而不知其父之已賣先後受七兩而歸...谷城富人洽宜傳啓東 欲買此物(輪鐘) 要余賣與而余不許 今聞洪家令「順天白雲山下倉村張姓治手」爲廉生之所曾熟者 誘廉生遠來還推...<이재난고 권34 辛丑年 十二月 十二日(庚辰)>

이 자료에 보이는 「順天白雲山下倉村張姓治手」는 "순천 백운산 아래의 창촌에 사는 장씨 성을 가진 대장장이"란 말입니다.

창촌은 바로 우리 시조의 산소가 계시는 곳에 있지 않던가요? 이제 백운산의 위치가 정확히 밝혀지니 한시름 놓이게 되었습니다.

각파의 <가승>에 의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벼슬하다가 난관에 부닥치면 거의 백운산으로 내려가 은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운산이 우리 씨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산의 위치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었던 것인데, 이제 그 위치가 밝혀졌으니, 펍 다행한 일입니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專門委員)

이 기사(記事)는 월간 「경제풍월」 4월 호에 게재된 절재 공 인물평전 「거칠 것이 없어라」 소개 글입니다. 특히 이 글은 평소 절재공의 유덕과 숭고한 정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월간 「경제풍월」의 대표이신 언론인 배병휴선생님의 배려로 쓰여진 것입니다. 종친여러분의 필독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을 다시 생각하는 「거칠 것이 없어라」

북방호랑이 金宗瑞 · 평전 李德—지음 · 김영사 발행

5척단신의 성리학자 김종서 장군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의 '조선선상고문화사'에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썩은 유학자(腐儒)"라고 힐난했다.

물론 조선에는 썩은 유학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진짜 유학자들은 이들 부패한 가짜 유학자들에 맞서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철학으로 세상을 살았다.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김종서(金宗瑞) 장군도 그런 참 유학자 중 한사람이다.

김종서는 5척단신의 문관으로 조선시대 사구 육진을 개척, 영토를 넓혔으며 '백성의 아버지'로 추앙받았다. 그런 김종서는 좌의정으로 있던 단종 1년(1453, 계유년) 일흔의 나이로,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에게 살해되고 만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목숨바쳐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 북방을 호령한 대호(大虎), 당대 제일의 역사가였던 그가 일순간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했던 역사의 아이러니는 또 무엇인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이 지은 김종서평전 '거칠 것이 없어라'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들어있다. 역사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임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다. 또한 김종서를 비롯해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걸었던 인생들이 성공한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다.

'愛妓에게 뇌물바친 사람 우대' 모함

함길도 도절제사로 있던 절제 김종서는 회령절제사로 있던 박호문(朴好問)에게 참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가 받은 혐의 중의 하나는 김종서가 자신의 애기(愛妓)에게 뇌물을 바친 사람들만 우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김종서는 모친의 삼년상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혐의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승지 김돈(金墩)은 세조에게 이 혐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나 종서는 유학자입니다. 기복(起復:상종의 관리가 비술에 나가는 것)하여 진(鎭)으로 돌아갈 때는 실로 애통할 때인데, 어찌 기생을 데리고 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조선 초기의 유학자는 수신(修身)과 제가(齊家)에 모범이 된 후 치국(治國)에 나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종서는 그런 사람에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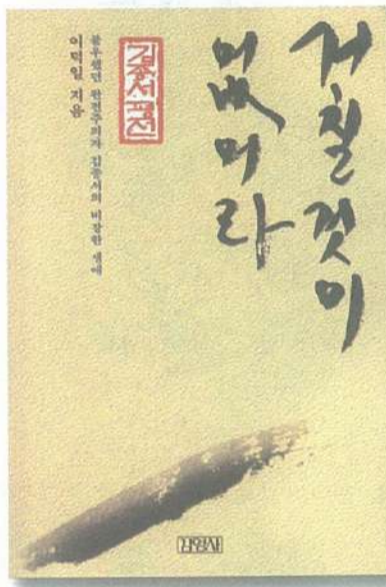
김종서를 살해한 수양대군은 신숙주나 권람 같은 조사(朝士)들은 물론 한명회 같은 백수건달들까지 광범위하게 끌어 모았다. 그러나 김종서를 끌어들이려는 생각이 없었다. 김종서는 권력에 영혼을 파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성리학적 세계관을 실천하는 유학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종의 유명(遺命)을 받은 김종서에게 단종에 대한 충성은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선왕과의 약속이었다. 또한 왕조국가 조선서 단종은 군주가 된 한 어린 개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의 상징 그 자체이기도 했다. 김종서는 정상적인 왕조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쪽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요즘말로 하면 현정수호에 목숨을 건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정파괴 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김종서를 죽인 세조는 그를 역적으로 몰았고, 이후 수백 년 동안 그의 신원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가 되었다. 김종서는 죽은 후 '노산군 일기'와 '세조 실록'에 계속 역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 기간에 걸쳐 수양일파를 빼고는 그 누구도 그를 역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가 죽은 54년 후인 중종 2년 '중종실록'의 사관(士官)은 강원도 도사(都事) 유부(柳溥)가 강릉부사 김연수와 말다툼 끝에 사직한 사실을 기록했다. 이때 사신(史臣)은 유부가 선정을 베푼 관리였다고 말하면서도 "연수는 김종서의 외손으로 칭



백한 절개가 있었다"라고 부기함으로써 외손을 빌어 은근히 김종서의 절개를 들어냈다.

조선의 거유(巨儒) 율곡 이이(李?)도 마찬가지였다. 선조 16년 이이는 당파를 초월해 인재를 등용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문에서, "김종서는 드러나게 탄핵받았으나 자기 의견을 관철하여 육진을 개척하였습니다"라는 예를 들어 김종서가 많은 어려움 끝에 육진개척의 대업을 완수한 사실을 되새겼다. 사대부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여진족이 세운 후금(後金), 즉 청(淸)과 극도의 긴장관계에 있던 조선 16대 임금 인조는 함경감사 김기종에게 "옛날에 김종서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창건하였는데, 지금 지키는 것은 이보다 쉽지 않겠는가... 경이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독려했다. 만약 김종서가 실제 역도였다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금기가 되었을 것이다.

임금까지 김종서의 공적 언급

조선의 사대부는 물론 임금까지 그의 공적을 공공연히 언급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그를 역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사대부는 물론 임금까지도 김종서를 나라의 강역을 넓힌 영웅이자 단종에 대한 충신으로 여겼던 것이다. 김종서는 이처럼 조선의 선비들과 임금들의 마음속에서는 신원되었지만 공식적인 신원은 쉽지 않았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후 그의 후손들이 계속 보위(寶位)를 이었기 때문에 후대 왕들은 자신의 조상이 때려 죽인 사람을 신원시킬 수 없었다. 세조의 직계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으면서 김종서의 신원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임금과 신하들 사이에 하나의 목계(木契)가 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권력으로 사람들의 입은 침묵시킬 수 있었지만 진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김종서가 수양에게 죽임을 당한 2백27년만인 숙종 6년(1680년), 강화 유수 이선이 상소를 올려 김종서와 황보인, 그리고 사육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것이 김종서 사후 나온 첫 신원 요청이었다. 그러나 김종서의 신원은 세조 집권의 정통성과 맞물려 있기에 쉽지 않은 문제였다.

영원한 가치에 목숨건 사람들

이선이 상소에서 요구한 신원 대상자 중 사육신은 11년 후인 숙종 17년에 복관시키면서 나라에서 묘우(廟宇)를 만들어 제사하게 함으로써 정식으로 신원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육신에 국한된 문제여서 김종서와 황보인은 여전히 원통한 한을 품고 누워있어야 했다. 반면 김종서가 개척한 함경도 지역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사당을 세우고 그를 추념했던 것이다.

영조시절에도 진실은 김종서의 신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김종서가 공식적으로 신원된 것은 사망한지 무려 2백93년 후인 영조 22년이었다. 결국 승리한 것은 진실이었다.

그러나 수백 년간 구천을 떠돌며 끊임없이 요구해 승리한 진실은 오늘날 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저자 이덕일 박사는 말했다. 수백 년 전 수양대군이 입증해 보인 "이기면 관군(官軍)이요, 지면 반군(叛軍)"이란 식의 뒤뜰런 역사관이 가치관의 혼돈시대를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긴 것이 곧 정의라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때로는 진 것이 정의이며 탄압받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은 패배한 정의와 탄압받는 진실의 편에 섰으로써 현실속에서 자신의 인생자세를 희생하기도 한다. 짐승의 논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조롱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 우리 사회는 짐승집단이 아니라 사람사는 사회로 존속해 올 수 있었다.

이 책은 바로 패배한 정의와 탄압받는 진실의 편에 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의해 쓰여진 것이다.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의 이야기이다.

(글: 경제풍월 신정희부장)

회비 입금 현황

2000년 12월 8일 ~ 2001년 3월 31일 현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문년회비									
김규남	충남 보령 두룡	김광성	서울 홍인동	김동욱	경북 문경 궁기리	김대섭	대구 달서구 본리동	김성환	경북 영천 도암동
김승연	한화그룹	김근연	서울 강서 마곡동	김두석	인천 남구 주안6동	김경진	전북 군산 명산동	김수경	경기 고양 화전동
김두희	대구 수성구 2가	김원기	경기 시흥 정왕동	김옥진	전남 목포 용당1동	김호연	서울 강서 화곡동	김영철	경남 양산 석계리
김행엽	서울 강남 논현	김동섭	경기 고양 행신동	김영환	경북 문경 성유리	김광연	서울 강서 방화3동	김광수	대구 남구 봉덕3동
김달현	서울 강남 개포	김인재	서울 노원 상계9동	김형팔	광주 북구 매곡동	김병희	서울 동작 노랑진	김동호	강원 춘천 효자2동
김재준	강남 압구정동	김영목	충남 금산 상리	김춘희	경남 사천 죽천리	김일천	전남 장흥 유치면	김용옥	전북 완주 사봉리
부회장년회비									
김상용	광주 서구 양2동	김봉래	강원 정선 임계면	김동선	충북 충주 용산동	김수연	경남 하동 입석리	김재극	경기 의정부 녹양
김정인	광주 서구 화정동	김종희	광주 북구 두암동	김상천	경기 안성 석정동	김연기	경북 영양 서부2리	김길영	서울 서초 반포
김철희	강남 압구정동	김정수	전북 임실 심은리	김옥연	경북 상주 이안면	김압장	전남 목포 용당동	김정원	경기 구리 교문리
김철준	영등포 한방병원	김동수	경북 안동 안막동	김광수	경기 가평 삼회리	김중익	전북 임실 신기면	김정일	경기 구리 교문리
운영위원년회비									
김도연	경북 문경 반곡	김동진	경기 고양 주교동	김병태	서울 성북 장위2동	김만희	경북 문경 갈천리	김태연	충북 청주 흥덕구
김병석	전남 담양군. 읍	김동윤	전북 임실 신기리	김홍지	인천 남구 용현5동	김삼연	전북 임실 오수면	김희완	대전 중구 용두1동
김용득	광주 남구 주월	김동호	충북 보은 사내리	김동철	대구 북구 칠성1가	김동우	경북 안동 도양1리	김동호	충북 청주시
김춘집	서대문구 아현동	김복귀	충북 충주 주덕읍	김노성	경기 이천 군량1리	김형춘	충남 논산 대교2리	김수호	서울 금천 가산동
김동균	대구 동구 신기동	김형호	경기 안산 성포동	김동삼	서울 송파 잠실4동	김강원	전북 익산 모현동	김광원	부산 연제 7동
이사년회비									
김동석	경북 문경 집촌동	김철영	경북 문경 왕능1리	김영락	울산 남구 신정3동	김채영	전북 익산 남중동	김상성	충남 부여 구아리
김정식	서대문 남가좌동	김인수	강원 철원 동송읍	김태연	서울 노원 중계1동	김승희	서울 강북구 번2동	김병근	강원 태백 황지동
김의용	대구 남구 대명	김무원	전남 해산 황산	김병윤	경기 성남 정자동	김영수	경북 선주 송학리	김인섭	대구 중구 동인3가
김안천	광주 동구 동명동	김성종	전북 임실 오수면	김동언	경기 이천 증포동	김상안	경북 문경 진곡리	김용옥	전북 완주 사봉리
김영창	서울 강서 화곡동	김동한	경기 이천 신문면	김시남	경기 김포 전호리	김태남	강원도 철원 갈말	김홍석	인천 남구 승의2동
김상목	전남 해남 춘정리	김창수	인천 계양구 작전	김의섭	경기 이천 남정1리	김유동	부산 남구 대연1동	김덕수	전남 여천 신산
김정록	서울 성동 성수	김영희	부산 금정 서2동	김중섭	서울 광진 군자동	김동파	경남 진해 여좌동	김정식	서울 성북 보문3가
김수부	강원 인제 서리	김영민	충북 진천 광혜원	김동환	서울 강북 미아2동	김상만	전남 해남 남천리	김재룡	경기 성남 구미동
김동기	서울 송파 풍납	김유석	전남 담양군 담양읍	김한웅	경기 수원 교동	김재명	서귀포시 중문동	김재남	서울 중랑 신내동
김동수	서울 성북 돈암동	김명덕	대구 달서 용산동	김동원	서울 구로 구로동	김준연	인천 연수 동춘2동	김윤섭	대구 달서 파산동
김계재	경기 고양 내유	김형욱	서울 영등포 대림	김중석	충남 부여 죽정리	김방석	광주 서구 치평동	김인규	경북 경주 양남면
김상용	경기 고양 내유	김기환	경북 문경 성유2리	김동수	서울 강남 삼성동	김병문	경기 여주 당우리	김동성	경기 성남 상대2동
김경희	경기 부천 원미	김학연	강원 철원 군탄리	김인기	서대문구 연희동	김석영	인천 계양 계산2동	김광도	강원 양구 임당1리
김동준	충남 천안 청당	김창수	서울 중랑 신내2동	김용연	서울 성북 정릉3동	김덕근	전남 영암 미암	김희남	서울 금촌 시흥4동
김범배	인천 남동 구월동	김병준	충북 보은 수정리	김동길	서울 성북 정릉2동	김순정	충남 서천 봉명리	김지탁	경북 문경 전곡리
김병달	경기 고양 일산	김동수	경북 구미 구포동	김윤영	인천 동구 송현동	김만희	경북 가은 전곡리	김갑원	전남 해남 상공리
김명재	경기 안양 박달동	김상대	전남 해남 방춘리	김재문	대구 북구 매천동	김영순	강원 철원 갈말읍	김남식	전남 고흥 신교리
대의원년회비									
김동욱	부산 연제 연산동	김권홍	충남 금산 흑암리	김순수	서울 성북 하월곡	김상근	충남 천안 상덕리	김도균	강원 원주 태정2동
김상의	경기 고양 내유	김동수	충북 충주 용산	김복재	경기 이천 송갈2리	김중근	부산 강서 봉림동	김동우	인천 남동 간석2동
김병관	경기 부천 원미구	김학수	전북 임실 신기리	김용열	서울 성동 성수 1가	김병기	부산 진구 양정동	김동익	충북 청주 문화동
김현국	서울 서초 방배	김종식	서울 영등포 문래	김상돈	경기 파주 조리	김동선	경기 이천 남정1리	김동현	경기 이천 남정2리
김현정	충남 서천 지현	김대연	서울 성북 장위3동	김창렬	수원 장안 정자동	김순희	경북 문경 반곡리	김방현	경북 안동 구담리
김한수	경기 수원 신동	김운용	서울 여의도	김상화	서울 노원 중계동	김동범	경북 안동 구담리	김봉희	전남 해남 상동리
김해수	부산 대연6동	김석연	인천 연수 선학동	김길정	대전 동구 삼성동	김동복	경북 안동 원호리	김상심	경기 고양 내유1동
김용석	경기 김포 고막	김선균	강원 춘천 석사동	김소환	전북 익산 화산리	김석연	경북 문경 반곡리	김상환	경기 고양 화정동
김병모	부산 전포4동	김석산	경북 안동 안기동	김명수	전북 임실 둔덕리	김동면	대구 중구 봉산동	김종길	전남 순천 마산리
김광홍	서울 은평 신사	김동한	경기 고양 일산	김동주	부산 기장 동부리	김동준	전남 순천 인제	김좌섭	경북 봉화 외삼2리
김병관	경기 부천 도당	김서연	서울 중랑 면목동	김동직	경기 이천 서경리	김선학	경북 문경 작천리	김해용	대전 서구 용문동
김상근	경기 고양 내유	김대연	서울 양천 신정1동	김성희	경기 파주 용미리	김정순	서울 중구 신당동	김홍원	서울 도봉 도봉동
김시혁	서울 관악 신림	김연관	경기 이천 오남2리	김정석	전남 해남 해리	김종식	전북 임실 죽계리	김정희	서울 송파 마천1동
김덕수	경북 안동시	김영열	강원 횡성 오원리	김영운	전남 해남 북평리	김인식	충남 보령 수부리	김철연	경북 안동 구담2리
김오현	경북 안동 신안	김동진	전북 전주 소천동	김창희	경북 구미 송정동	김원석	광주 북구 우산동	김 호	서울 동작 상도2동
김서연	경기 고양 내유	김동엽	경기 안양 호계동	김상호	경북 포항 대송면	김동국	서울 은평 불광2동	김용한	충북 제천 수산리
김수영	충북 청주 상당	김원달	경북 군위 장군1리	김상호	대구 달서구 상인동	김성원	대구 북구 관음동	김장호	강원 춘천 후평2동
김석남	안성 외가천리	김영환	전북 산내 외덕3리	김동수	경북 안동 명진2리	김상균	제주 서귀포 중문	김영대	부산 연제 연산7동
김동선	경기 이천 관고	김동수	서울 강동 둔촌동	김상용	제주 이호 2동	김병도	인천 서구 신현동	김덕수	전남 여천 신산리
김상균	경기 양평 양근	김수창	충북 청주 울량동	김규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	김희은	대구 서구 도마동	김해동	서울 관악 봉천9동
간사장년회비									
김학원	경기 고양 화정동	김동성	경기 성남 상대2동	김연만	충북 청원 양지리	김동규	서울 성동 성수동	2001. 3. 29. 춘향제 찬조금	
세대당년회비									
김해동	서울 관악 봉천9동	김영대	부산 연제 연산7동	김유길	경기 수원 파장동	김금호	서울 신월 7동	공동 기부금	337,000
김영일	경남 완월동	김동호	강원 효자2동	김원모	강원 정선 송계리	김규식	충남 연기 조치원	해남 김정태, 김상윤, 김태현	60,000
김상용	제주 이호2동	김태순	경북 안동 임동면	김승재	경기 여주 태평2리	김동주	서울 성북 안암동	광주 김정일	100,000
김세연	경기 파주 금촌 2동	김정원	경북 성주군 광산	김영익	영등포구 신길1동	김휘천	경기 수원 권선구	부산 김보현	20,000
2001. 3. 29. 춘향제 찬조금									
김해동	서울 관악 봉천9동	김종열	전남 순천 마산리	김동연	전남 해남 구성리	김동표	경북 안동 풍천면	절제공파 김형돈	50,000
김영일	경남 완월동	김근익	대구 북구 칠성2가	김찬원	전남 해남 유동리	김용훈	서울 은평 응암2동	보령 춘친회	100,000
김상용	제주 이호2동	김철재	경기 여주 대신2리	김상주	전남 해남 외입리	김광도	강원 양구군 동면	김영창	10,000
김세연	경기 파주 금촌 2동	김연식	경기 용인 구성읍	김인환	충남 부여 동남리	김희남	서울 금촌 시흥4동	해남 망미당 공파중중	50,000
부산중친회									
김해동	서울 관악 봉천9동	김동주	서울 강남 삼성동	김동수	경기 연천 원당2리	김하연	부산 동구 좌천4동	부산중친회	50,000
김영일	경남 완월동	김재열	전남 해남 연당리	김상곡	전남 순천 생목동	김성근	서울 강서 등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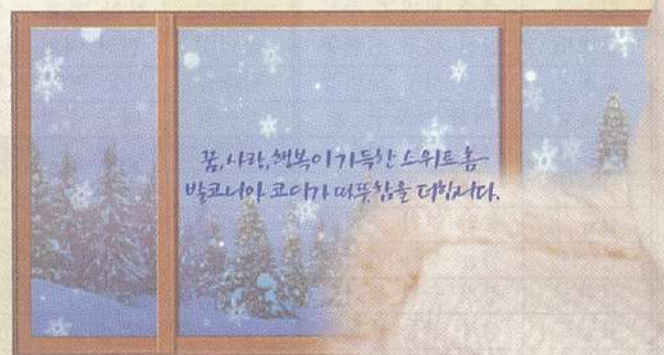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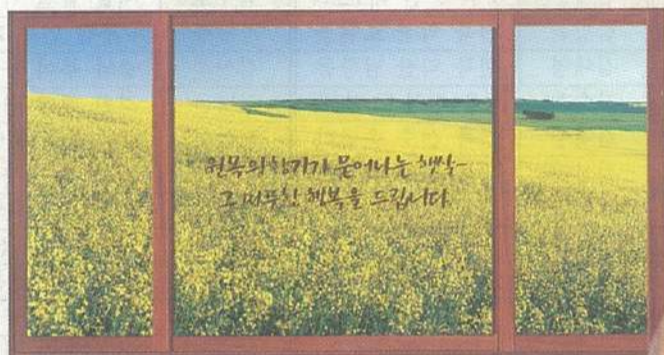
“알려드립니다”

임원 및 세대당 회비를 납입하실 때는 반드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를 납입하고도 주소나 전화번호가 없어 입금자 명단에 등재하지 못한 중친이 108명에 이르고 있고, 2001년 회비를 입금하신 중친은 3월

31일 현재 875명입니다. 연회비를 입금하지 않으신 중친께서는 계속 지로용지를 보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중사(宗事) 운영과 대동보 편찬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친 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한화종합화학
http://www.hlcc.co.kr

뜨지 않고 바뀌다는 발코니샤시- 한화 발코니아 코디



발코니도 주부 맘대로 바꿔보세요!

이제, 발코니도 주부의 감각에 따라, 집안 분위기에 맞게 바꿔주세요. 뜨지 않고 손쉽게 바뀌다는 발코니 전용샤시 한화 발코니아 코디가 당신의 생활을 아름답게 바꿔 드립니다.



발코니아 코디 기본틀
손쉽게 바꿔 끼는 칼라커버
한화종합화학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All Cover System' 한 번 설치하시면 기본 틀을 뜯지 않고 원하는 칼라커버로 언제든지 쉽고 경제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션 발코니 전용 샤시
한화 발코니아 코디